

진여원(眞如苑) NEWS LETTER

[제13호](2014.9)

서울시 용산
구 청파동
3가 119-2
진여원홍보
팀

국제행사! 아시아 청년의 만남 2014 AYG 부산정사에서 개최되어

아시아 진여청년들의 연례 모임인 AYG (Asian Youth Gathering)가 지난 9월 27~28일 부산정사에서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아시아 청년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 등 15개국의 청년대표 81명이 참가하여 실질적으로는 세계 진여청년들의 모임이 개최된 것이다. AYG는 차세대의 진여청년을 육성시켜 나가기 위한 아시아 청년들의 모임으로서 매년 각국의 현황소개, 청년들의 신심향상을 위한 정진현황, 종정스님의 원하트 추진을 위한 각오등을 전달하고 이를 상호 공유하는 공감의 자리로 정착되고 있다.

금년은 청년회 발족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Shinnyo를 전하다'라는 60주년 테마하에 전세계 청년이 Shinnyo를 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연수행사로 부산정사에게 개최되었다.



부산정사에서 행해진 2014 AYG 참가자

국가별 참가수를 보면 영국 1명, 독일 1명, 이탈리아 1명, 미국 3명, 호주 3명, 인도네시아 1명, 싱가포르 5명, 스리랑카 3명, 홍콩 3명, 태국 3명, 미얀마 1명, 중국 1명, 타이완 8명, 일본 19명, 그리고 한국에서 28명의 청년대표가 참가하였다.

세계 진여 청년대표는 부산정사의 따뜻한 분위기에 놀라고, 한국의 맑고 상쾌한 날씨와 인정미에 포근함을 느꼈다.

2일간 개최된 행사에서 1일째는 각국의 현황 소개, 각국 청년간 친목도모를 위한 다양하고도 흥겨운 게임, 그룹별 토의, 퀴즈놀이 등으로 교류를 하였다.

2일째에는 고도 경주의 불국사, 천마총, 박물관 등을 방문하였다. 단풍은 아직 물들지 않았지만, 한국의 찬란한 불교예술과 문화에 모두들 감탄을 연발하였다.

경주 관광을 마친 후 부산정사로 돌아온 청년들은 그룹별 회의를 하며 정진을 향한 마음의 각오를 다졌다.

참좌한 청년대표들은 짧은 2일간의 행사이었으나, 부산정사에서 느끼고 공유한 내용을 참좌하지 못한 자국의 청년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어 11월에 개최되는 세계 청년회로 이어가기로 하였다.

금월의 인물 인터뷰(청년회 부회장 니이하라 氏)

2014 AYG를 총괄한 니이하라(新原) 청년회 부회장과 인터뷰하였다.

☎ : 이번 AYG가 한국에서 개최된 배경은?

👉 : 아시아 각국이 순서대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은 한국의 순서이다.

☎ 몇 개국에서 참가했나?

👉 15개국에서 81명이 참여했다. 예년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이다.

☎ 부산정사에 대한 소감은?

👉 많은 나라의 정사를 돌아보았고, 일본내 정사도 많지만, 부산정사처럼 최첨단 정사는 처음이다. 외부와 전혀 차단되지 않고, 완전히 열려있는 정사라는 느낌이다. 더구나 매우 따뜻한 느낌이 든다. 또한 중정스님께서 말씀하시는 “Shinnyo를 전하다”에 모두들 열심히 노력하는 분위기를 강하게 느꼈다.

☎ 이번 모임의 특성은?

👉 원래는 아시아 지역의 청년들만 모이는데, 이번에는 청년회 6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 유럽의 청년들도 함께 참가하였다.

☎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 부산은 서울과 다르고, 항만도시라는 매우 이국적이면서도 개방적인 도시로서, 외국인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음을 느꼈다. 특히 한국의 음식이 입에 잘 맞아 매우 좋았다.

홍구표, 한국 청년대표의 소감

AYG를 부산정사에서 기쁨과 감동 그리고 즐거움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회 60주년, 전세계 청년이 모인 만큼, “게이슈사마를 대신해 기쁘게 맞이하자!”, “한마음으로 Shinnyo를!” 외치며 준비했습니다.

9월 27일 9시 해외청년들이 정사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청년들은 해외청년들을 환하게 맞이하였고, 각자의 개성과 Shinnyo를 공유해가며 보전을 기쁨과 열정으로 채워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 게이슈사마께서 지켜봐주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기쁨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함께 한 청년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국경, 언어의 장벽을 초월한 융화세계가 눈앞에서 실현되어 항상 귀로만 듣고, 말로만 창화하던 융화세계 및 ‘Shinnyo를 전하다’라는 슬로건이 ‘아! 이런 것이구나!’라고 실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AYG에서 각자가 느꼈던 Shinnyo를 11월에 개최될 세계 청년회 60주년 이벤트 및 미래를 향해 정진해 가는 청년회가 되고 싶습니다.

<봉안법요> 감사의 글(양정숙 제주교구대표)

접심도량 복건에 이어 부산정사 봉안법요로 이어지는 가절에 감사의 글을 언상하게 되어 개조, 영조, 두 법사님, 게이슈사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르침에 맺어진 것은 돌아가신 남편의 동기생인 대학교수가 일본에서 제주로 관광 왔을 때 저의 집에서 식사대접을 한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스지오야가 보내주는 여러가지 교서, 사진 등을 받아보고 이상한 종교라고 생각하던 차에 열반경과 교슈사마의 모습을, 당시 다니던 한국 절의 큰스님께 보여드렸더니, 열반경의 훌륭함과 교슈사마의 모습이 너무 훌륭하다는 말을 듣게 되어,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열려 정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0여년간 가르침을 하면서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 접심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특종 위암으로 큰 수술을 받았으나 정말 감사하게도 큰 고생없이 잘 견디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수술받은 환자는 식사도 못하는데 저는 항암치료도 받지 않았음에도 식사도 잘하고 5년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만약 가르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개조님, 영조님, 두 법사님, 신노 게이슈사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정진하고 있는 제주포교소도 새롭게 훌륭한 장소를 받아 제주 교도분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정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쁨과 감사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6월에는 대환희 상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는 게이슈사마께 감사드립니다. 신·행·해! 믿고 행하면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3월은 제주 신포교소 개소, 7월은 접심도량 입불개안법요, 오늘 부산정사 봉안법요로 한국 첫 열반존상 안치의 기쁨에 대한 보답으로 한사람이라도 더 가르침의 구제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루 빨리 원만한 지도자로서 영능을 향해 한국의 토대가 되어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가르침을 관철할 것을 맹세합니다.

“귀하게도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가르침이 있기 때문임을 알라”

<봉안법요> 감사의 글(윤계숙 창원교구대표)

부산정사 봉안법요 개소식에 감사의 글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개조, 영조, 게이슈사마, 호법선신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9년 4월 남편의 암 선고에 힘들어 하고 있을 때, 일본에 있는 시누이의 강요로 입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병간호 때문에 정진은 커녕 귀원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도자께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행하는 정성 어린 기도와 교화에 마음이 기울어 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지나가고, 결국 남편은 저희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사업이 큰 위기를 겪게 되었고, 살아갈 용기조차 찾지 못했으며,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 희망을 잃고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자 개조, 영조, 두 법사님, 게이슈사마를 찾아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독경하기로 각오하고, 실천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진을 각오하니 스지오야, 인도자,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정진을 하고, 힘을 실어주었으며, 저에게도 소속들이 생겨났습니다.

포교사님, 스지오야, 가족 그리고 소속들 포함해도 적은 인원이지만 값진 가정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늘 함께하던 남편이 떠나고, 남겨놓고 간 사업에 여자 혼자 헤쳐나가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고, 정진의 토대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점심수행과 상구보리의 힘이었습니다. 그동안 선조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덕을 다 써버려, 이타행으로 그 덕을 다시 쌓으면 빛이 보일 것이라는 영언을 믿고 열심히 정진하였습니다.

개조, 영조, 두 법사님께서 가르침에 이어지는 하화중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큰 발고대수로 지난 2012년 7월 1일 대승을 상승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가지 실천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지오야와 인도자로부터 소속을 위해 아낌없는 참마음으로 실천하는 구제의 가르침도 배웠습니다.

게이슈사마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나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던 중에,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저를 지켜 주었던 큰 아들이 상참배를 앞두고 그동안의 설움과 불만을 적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표현에 서툰 큰아들에게 잠재했던 엄마를 향한 불만과 불평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순간 패썹한 마음과 어찌면 이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르침의 근본인 상대의 마음으로 돌려 생각하고자 마음먹으니,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자식을 위한다는 나의 언행이 오히려 자식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구나 싶어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사건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의 기근에 맞춰야 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부처님의 목소리로 받아들이 수 있었습니다.

참회와 진심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무렵, 부족한 저를 환희로 상승시켜 주셨습니다. 아직 너무도 부족하지만 발고대수로 이어진 목숨!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 게이슈사마의 제자로서, 한국인의 토대로서 한 치의 부끄럼이 없는 영능자가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으로, 자손대대로 신묘의 가르침을 지켜나갈 것을 맹세합니다.